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04 Vol. 6



커버스토리

봄나들이 함께 가고 싶은 선수 1위
상명대학교 농구부, **류지석**

สปอร์ต라이트

대학배구의 숨은 보석,
목포과학대학교 배구부

페이스메이커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에 떠나는 자전거나들이

spring



‘봄’이란 말만으로도 향기가 나고 신선한 기분이 감돈다.
 추운 겨울내 잠시 쉬어있었다 힘차게 피기 시작하는 꽃들처럼
 대학스포츠의 ‘봄’을 알리는 개막경기 또한 생기가 돋고 힘이 배반치다.
 우리들 가슴을 포근히 적셔주는 ‘봄’처럼 봄날 같은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이해인 수녀의 <봄날 같은 사람> 발췌 인용-



Contents

04



커버스토리

대학농구에
훈훈함 물고 올 상명대
류지석

09



스포츠라이트

세상에 너의 꿈을 펼쳐라,
대학배구의 숨은 보석
목포과학대학교 배구부

11



포토타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단국대학교 농구부
오승현의 하루

대학리그소식

2015 카페베네 U리그 PREVIEW

13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프리뷰

16

대학배구리그 주장 말.말.말!

19

페이스메이커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에 떠나는 자전거 나들이

22

視視各各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이 바라 본 대학스포츠리그

24

멘토를 만나다

스포츠 중계채널 STN 메인 프로듀서 김지훈 PD

27

레전드 매치

가장 짜릿했던 2014년 대학스포츠의 순간

29

KUSF NEWS

31

취재 후일담

32

대학농구에
훈훈함 몰고 올

상명대 류지석



봄바람 휘날리며~ 훑날리는 벚꽃 잎이~ 올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제는 봄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인 '벚꽃엔딩'의 한 구절이다. 노래의 한 구절처럼 도저히 도서관에 몸을 둘 수 없는 봄의 화사한 풍경이 우리를 봄 소풍 가고 싶게 만든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서 같이 걸을 이성 친구가 없으면 섭섭하다. 조금이나마 섭섭함을 달래줄 학생선수를 소개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상명대 농구부 센터로 팀의 골밑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류지석이 대학스포츠 웹진의 눈에 들어왔다. 봄만 되면 다시금 인기를 끄는 벚꽃엔딩처럼 롱런을 꿈꾸는 그를 만나고 왔다.



뜻뜻함과 어색함이 함께했던 사진 촬영

아직은 봄의 기운이 찾아오지 않았던 3월 초 상명대 천안캠퍼스. 따뜻한 햇살과 벚꽃 대신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과 앙상한 나뭇가지 속에서 사진촬영은 이뤄졌다. '봄 소풍 같이 가고 싶은 대학스포츠선수'라는 인터



부 주제를 살리기엔 어려운 캠퍼스 분위기였다. 하지만 촬영을 위해 한껏 멋을 낸 류지석과 현장에서 섭외된 상명대 디자인과 동아리 'act' 학우들의 만남이 만든 풋풋한 분위기가 캠퍼스를 가득 채웠다. 류지석과 여 학우들은 처음 만나는 사이라 어색했지만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또한 큰 키에서 풍겨 나오는 당당함과 시원한 미소는 멋진 사진이 나오기 충분했다. 그는 “인터뷰는 많이 해 봤지만 이런 사진 촬영은 처음이었다. 평소에 하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좋았고 같이 촬영한 학우들에게 상명대 농구부를 알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중한 경험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해 했다.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다정다감함

자신이 '봄 소풍 같이 가고 싶은 대학스포츠선수'에 선정된 소감으로 “저 말고도 이 주제에 어울릴만한 선수들이 많은데 제가 뽑히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 실력까지 훈훈해져서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씩스러워했다.

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봄과 어울리는 활달한 성격은 아니라고 했다. “겉으로 챙겨주는 성격은 아니고 뒤에서 다정다감하게 챙겨준다.”며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다. 사진촬영현장에서 그의 성격은 드러났다. 말수는 적었지만 처음 만난 여 학우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봄 소풍 가고 싶은 이상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탤런트 박수진 씨가 좋더라. 예쁘기도 하지만 TV에서 잘 먹는 모습에 반했다. 사실 다 마음에 든다.(웃음)”며 부끄러워하면서도 이상형을 얘기하는 동안 입가에 미소가 저절





로 번졌다. 봄 소풍에 대한 기억은 단순했다. 농구선수 생활을 일찍부터 한 탓에 그에게 봄 소풍은 초등학교 이후로 없었다. “친구랑 같이 도시락을 먹었는데 저는 김밥을 가져왔고 친구는 유부초밥을 가져왔는데 유부초밥이 맛있어서 친구가 부러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봄이 되면 열리는 상명대 축제도 떠올렸다. 상명대 축제는 학생들의 열광적인 참여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축제기간 동안에도 훈련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축제를 온전히 즐긴 적은 없다. 감독님께서 저녁에 잠깐이나마 2~3시간 정도 놀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셨는데 정말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그때만큼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놀면서 ‘나도 상명대 학생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단조로운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올 시즌 키워드는 ‘듬직함’

류지석은 올해 동계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부상으로 인해 재활에 매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늦게 훈련에 합류했지만 그렇다고 동요하지 않았다. “동계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지만 재활하는 동안 명언집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 그때 봤던 명언 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말이 제 마음에 들었다. 지금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시즌 중에 다쳐서 고생했을 것이다. 오히려 일찍 다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감독님께서 항상 ‘5년 고생하고 50년 편하게 살자’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명심하고 늦게 합류한 만큼 빨리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 누구보다 더 노력했다.”고 부상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상명대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현석(현 서울 SK)를 프로로 보냈다. 전력 약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 시즌 도약을 꿈꾸는 상명대 입장에서는 그의 공백이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주장인 정성우와 함께 3학년이 된 류지석의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듬직해지기로 했다. 그가 찾은 방법은 바로 웨이트.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체중을 96kg에서 105kg로 늘렸다.”고 리그 개막 전 가진 연습경기에서 상대선수와의 몸싸움에 밀리지 않음을 느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도했던 중거리슛도 정확해지기 위해 더욱 갈고 닦았다. “예전에는 리바운드를 잡을 사람이 없어서 중거리슛을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고학년이 됐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득점에도 참여해 기회만 되면 쓸 것이다.”며 날카로운 중거리슛 실력을 예고했다.

나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류지석이 봄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다. “일주일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계획 없이 발이 닿는 데로 떠나는 무전여행을 떠나고 싶다. 바다에 가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봄에는 가고 싶은 여행 대신 대학리그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올해 대학리그가 자신의 기량이 만개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아직 저의 봄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즌 평균 14점 9리바운드를 기록한 지난 시즌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득점과 리바운드에 힘쓸 생각이다.

또한 시즌 목표도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향해 있었다. 바로 4강이다. 상명대의 역대 최고성적은 6강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위권으로 평가받는 한양대·건국대·동국대·중앙대를 넘어서야 한다. “원래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서 말하는 편인데 목표는 4강이다. 중위권으로 분류되는 학교랑 다 해 볼 만하다. 지난해 붙어봤고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다 알고 있다. 길고 짧은 건 해봐야 알겠지만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며 담담히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자신감이 묻어있었다. 올해 플레이오프가 8강으로 확대됐고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오프가 단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류지석의 목표처럼 상명대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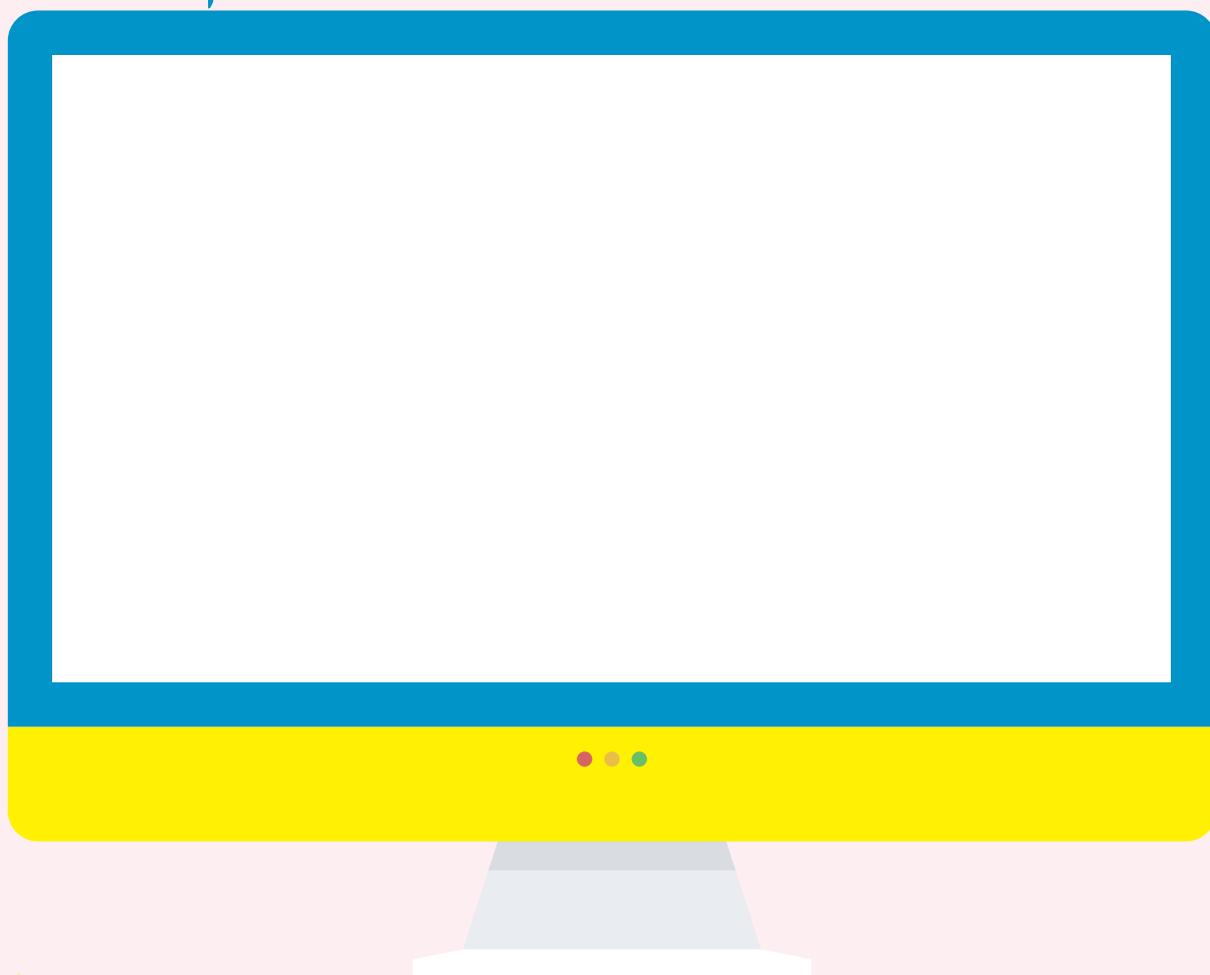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류지석은 “지금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고 응원해주실 분들도 더 생겼으면 하는데, 지난해보다 더 죽기 살기로 해서 제 개인기량도 올리고 팀 성적도 올릴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과 대학농구팬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남겼다.

각 학교 캠퍼스에는 대학농구·배구·축구리그가 열리고 있다. 대학스포츠에는 류지석을 포함해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훈훈한 선수들이 많다. 대학스포츠에 속한 모든 선수가 지금을 자신의 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공강 시간에 체육관·운동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플레이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건 어떨까.



대학농구에
훈훈함 물고 올

상명대 류지석



세상에 너의 꿈을 펼쳐라, 대학배구의 숨은 보석 목포과학대학교 배구부

2015 대학배구리그의 시작,
그와 함께 분주해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학리그에서 선심으로
활약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목포과학대학교 배구부다.
수준급의 배구 실력은 물론
'심판'이라는 특별한 능력까지
갖춘 그녀들. 대학리그를 넘어
한국 배구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목포과학대 배구부를 만나봤다.



창단 10년, 그리고 우승

목포과학대학교는 지난 2014 삼성 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에서 중원대, 단국대, 우석대학교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창단 10년 만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다. 이에 목포과학대의 김경숙 주장은 “감독님과 선수들, 그리고 단장님까지 모두들 정말 기뻐했어요. 참 뜻 깊은 순간이었죠.”라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평소 학업과 훈련은 물론 심판으로까지 활약하고 있는 그들이기에 춘계대회 우승은 모두를 놀라게 한 결과였다.

우리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목포과학대 선수들의 하루는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학업과

훈련, 그리고 심판으로서의 활동까지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욕심 많은 그녀들, 선수들 대부분이 학점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정도로 소문난 모범생들이다. 물론 운동선수로서의 본업에도 충실하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지칠 법도 하지만 저녁시간 혹은 점심시간 때 조금씩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하고 있단다. 대학배구리그가 한창 진행될 때는 선심의 역할까지 더해진다.

이에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도 있지만 훈련이 끝난 후 웨이트 운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며 그 비결을 전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3가지의 역할 중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이다.

'심판 양성소' 목포과학대

대학리그가 활성화된 남자배구와는 다르게 여자배구선수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프로무대에 진출한다. 때문에 대학리그, 특히 여대부 경기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목포과학대학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프로에 가지 못한 선수들, 또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심판'이라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판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대학이기에 더욱 특별한 목포과학대. 때문에 선수들은 목포과학대학에서 심판이라는 새로운 꿈을 안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다. 이미 목포과학대를 졸업해



실업리그, 프로무대에서 심판으로 활약하는 선배들 역시 적지 않을 정도로 그 교육과정 또한 탄탄하다.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두 차례에 걸쳐 심판법을 배우는 그녀들은 대한배구사상 최연소 국제심판이자 대한배구협회 심판위원장을 역임한 단장 이재운 교수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 1989년부터 목포과학대학교 교수로 지내온 이재운 단장은 2005년 사회체육과를 만들고 목포과학대 배구부를 창단했다. 이와 함께 심판법 강의도 새롭게 창설했다. 선수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그가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희망'이다. 대학에서의 든든한 지원도 없을뿐더러 선수들 개개인의 사정

목포과학대 단장
이재운 교수



이예요. 정말 의지가 많이 됩니다.”라며 이재운 교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

오심은 배구라는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목에 걸쳐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심판의 판정 하나가 그 경기 자체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판으로서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목포과학대 선수들 역시 “오심을 하면 그것이 계속 생각나서 슬럼프까지 이어지기도 해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들에게도 오심은 아직 떨쳐내기 힘든 무거운 짐이다.

이에 이재운 교수는 선수들에게 재빨리 평정심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확한 판정을 하기 어려운

목포과학대
주장 김경숙



실제로 시합이 모두 끝난 후에는 미팅을 통해 선수들을 다독이며 그 날 있었던 실수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곤 한다. 선수들 또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과 함께 책임감을 내비쳤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즐거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임에도 그녀들의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가 가득한 이유는 뚜렷한 목표와 그에 따르는 즐거움을 누리는 덕분이다. “물론 힘들지만 확실한 목표도 있고 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즐거움으로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늘잡아요. 그래서 힘든 점도 있지만 즐거운 일도 많아요.”

그들의 든직한 스승인 이재운 교수 역시 “선수들이 직접 심판으로 참여해 본인들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닫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지도자로서 흐뭇함을 느낍니다.”라며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목포과학대학교 배구부의 맏언니이자 주장인 김경숙은 목포과학대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팀보다 2년이 짧은 2년제 대학이지만 사회에 나가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절대 앞잡아 볼 수 없는 팀, 목포과학대학교, 우승을 넘어 ‘전관왕’을 목표로 차근차근 한 시즌을 준비하는 그녀들이 올해에도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도 좋다.

글·사진/

김보미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서다영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평소 심판 판정에 대한 자문과 함께 선수들의 개별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그를 선수들 역시 무척이나 잘 따른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심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심판의 임무이고요. 오심을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평정심을 찾아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시합을 뛰는 선수와 지도자, 관중 모두가 ‘아 역시 배구는 정말로 훌륭한 스포츠다’라고 느낄 수 있죠.”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단국대학교 농구부 오승현의 하루





수업에서 발표가 필요한 수업이라면, PPT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승현 선수의 수업은 학과 특성상 운동부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수업이다.
운동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이기에 수업을 듣는 것이라는 오승현 선수!
이런 마음이 바로 우수 학생성취 학생선수가 될 수 있었던 오승현 선수의 비결!

앞으로 모든 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함께하며 꽃피는 '대학생'이 되길 기대해보자!

2015 카페베네 U리그 PREVIEW

12월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2월에 열린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예열을 끝마친 대학축구 선수들은 개강과 함께 곧 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다. 큰 폭의 권역 이동이 일어난 만큼 지난 2014 카페베네 U리그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 한·일 정기전(이하 덴스컵), 2015 하나은행 FA컵,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전국체전까지 9개월간의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대학팀들의 면면을 권역 별로 소개한다.

(학교명은 모두 가나다순으로 명시함)

1 권역
(간원, 충북)

가톨릭관동대 / 상지대 / 상지영서대
송호대 / 순복음총회신학교
한라대 / 한중대 (총 7개교)

2014 리그 성적(권역리그)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성적

(C) KUSF 대학생 기자단 김유미

1권역: 가톨릭 관동대의 단독 질주

가톨릭관동대-상지대-한라대의 3강 구도였던 1권역은 올해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하 춘계연맹전)에서 32강에 올랐고 작년 리그 최소실점(2실점)과 권역 1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의 활약이 기대된다.

2 권역
(대전, 충북)

건국대 / 배재대 / 영동대
중원대 / 청주대
충북대 / 한남대(총 7개교)

2014 리그 성적(권역리그)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성적

(C) KUSF 대학생 기자단 김유미

2권역: 업그레이드된 건국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2권역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국대-배재대-한남대 3강 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는 올해 군산제일고 출신 공격수 원기종, 경남FC 우선지명을 받은 진주고 출신의 미드필더 전현근, 금호고 출신 수비수 박인서 등 특급 신인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힘썼고 춘계연맹전에서 이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남대 역시 작년 리그에서 권역 1위를 꺾었던 팀인 만큼 올 시즌의 활약이 기대되는 팀이다. 춘계연맹전에서 수도권 팀인 동국대, 아주대 등을 줄줄이 꺾고 8강까지 진출하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킹스컵에서 우승컵을 들고 돌아온 한남대 박동진은 춘계연맹전 이후에도 한·일 정기전 대표팀에 소집되었고 올해 역시 한남대의 수비를 책임진다.

3 권역
(서울, 경기, 인천)

고려대 / 광운대 / 국제사이버대
명지대 / 서울대 / 세종대
열린사이버대 / 인천대(총 8개교)

2014 리그 성적(권역리그)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성적

(C) KUSF 대학생 기자단 김유미

3권역: 디펜딩 챔피언 광운대, 올해에도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번 시즌 권역 편성에 있어 특히 수도권 권역에서 많은 변동이 일어났다. 약체로 평가되는 다른 팀과 한 권역에 속한 고려대와 광운대의 양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두 팀의 맞대결이 기대를 모은다. 작년 춘계연맹전 2위를 기록했고, 2월 춘계연맹전 16강에 오르며 강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인천대가 둘의 뒤를 이을지 혹은 이번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7명을 프로팀에 보내며 전력 손실이 큰 광운대는 춘계연맹전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전력이 베일에 가려 있지만 작년 연말부터 2개월이 넘는 동계훈련을 실시했고 해외 프로팀과의 연습경기에서도 승리소식이 들려온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수의 팀이 홈 경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3권역인 만큼 경기 때마다 선수단의 이동거리가 길어질 전망이다.



4권역: 수도권 죽음의 조, 3위권 싸움에 집중하라

이른 바 '죽음의 조'가 탄생했다. 권역추첨을 통해 수도권 강팀인 동국대, 성균관대, 송실대, 연세대 등이 같은 권역에 속하게 되면서 4 권역의 판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김진혁, 김승준 등 주포들이 모두 학교를 떠나면서 전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2014 시즌 리그에서 권역 무패우승을 한 강팀답게 춘계연맹전에서 3위를 수성하며 송실대는 건재함을 과시했다. 춘계연맹전에서 동국대와 연세대는 각각 16강, 8강에 올랐고,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긴 예원예대 또한 16강에 오르는 활약을 보여주었을 만큼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는 4권역이다. 작년 리그에서 6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춘계연맹전에서 막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연세대의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대는 김종필 전감독이 내셔널리그 용인시청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강원FC 감독이었던 김종갑 감독이 동국대 축구부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다. 성균관대는 춘계연맹전에서 조기탈락하며 작년 권역 1위에 무색한 성적을 냈지만, 설기현(前 인천유나이티드)의 성균관대 감독 부임 소식은 한동안 그 자체로도 큰 이슈가 됐다.



5권역: 수도권 강팀 집결지! 경희대의 파죽지세는 계속될 것인가

4권역과 마찬가지로 5권역에도 수도권 강팀들이 한데 모였다. 완벽

한 조직력을 선보이며 시즌 첫 대회인 춘계연맹전 우승을 차지한 경희대를 비롯해 매 경기 무서운 뒷심으로 같은 대회 3위를 이룬 용인대, 16강에서 경희대에게 발목을 잡혔던 한양대, 그리고 하석주 감독의 복귀로 리그 제패를 노리는 아주대, 2014 시즌 왕중왕전 3위의 중앙대까지 5권역의 8개교가 3위권에 속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디지털대는 이번 시즌부터 리그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6권역: 2014 리그 준우승팀 단국대와 권역 1위 홍익대의 맞대결

6권역에서는 지난 시즌 단국대와 홍익대가 승점 1점차로 리그 막바지까지 접전을 펼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팀의 치열한 선두 싸움이 예상된다. 단국대는 다수의 4학년 선수들로 구성됐던 춘계연맹전에서의 엔트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작년 리그 준우승의 주역이었던 선수 대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 홍익대 역시 춘계연맹전에서 경기당 평균 1득점, 멀티골의 활약을 펼친 부경고 출신의 공격수 최병찬 등의 영입으로 공격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했다. 작년 춘계대회에서 우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쌓았던 선문대 역시 눈여겨볼 만한 팀이다. 선문대 김재소 감독은 올해 열리는 제12회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7권역 : 호남 권역의 라이벌, 우석대 vs 호남대

7권역에서는 2014 카페베네 리그에서 무패우승을 달성하며 독주했던 우석대와 기존에 같은 권역에 속했던 남부대가 8권역에 속하게 되면서 우석대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호남대의 양강 구도가 그려진다. 작년보다 더 강해진 팀을 예고한 호남대는 U-16 대표를 지냈던 일등고 출신 골키퍼 김형중을 비롯해 현풍고 출신 미드필더 이지환, 포항제철고 출신 수비수 박재섭 등의 신입생들을 춘계연맹전에서 즉시 전력으로 활용한 바 있다. 조산대는 춘계연맹전에서 7권역에서는 유일하게 16강에 오르며 리그에서도 큰 무리 없이 3위권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8권역 : 절대강자 호남대, 올해에도 역시?

8권역에서는 호남권역의 절대 강팀으로 평가 받는 광주대가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작년 권역에서 2, 3위를 다투던 남부대, 동신대, 초당대 등의 중상위권 팀들도 3위권에 들기 위해 분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남부대는 신입생 없이 춘계연맹전을 치렀고 동신대 역시 두 명의 1학년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9권역 : 김병수 사단 영남셀로나, 전승 우승에 이은 기대되는 새 역사

권역 추첨에서 이동이 전무한 9권역과 10권역 각 8개교는 작년과 비슷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4 시즌 권역에서 전승 우승의 대역사를 쓰며 무적 '영남셀로나'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 주었던 영남대는 이번 춘계연맹전에서 역시 결승에 올라 유일한 지방팀으로 2위를 수성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대구대 역시 숨은 강팀으로 대두되면서 춘계연맹전에서 16강에 올랐고 송실대와외의 경기에서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180도 달라진 대구대를 기대하게 했다. 울산대도 36강에 이어 32강을 치르는 뻘뻘한 경기 일정 속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으로 상대팀들에게 부담감을 안겨 주었다.



10권역 : 아픈 만큼 성숙해진 동아대와 선두 탈환을 노리는 7개교

9권역과 함께 권역 추첨에서 구성학교 변동이 없었던 10권역에서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예측된다. 해체 위기에 시달렸던 동아대는 비 온 뒤 굳어진 땅의 모습으로 작년 리그에서 권역 1위를 차지했다. 동인대가 2위로 동아대의 뒤를 이었고 인제대와 부경대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작년 리그에서 5위로 챔피언십 진출과 전국체전 참가에 모두 실패했던 한국국제대의 반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비록 춘계연맹전에서 16강의 문턱 앞에서 좌절했지만 단단해진 조직력으로 매 경기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3위권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 사진/ 김유미 (KUSF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팀)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프리뷰

2015년, 대학농구리그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대부가 대학리그에 참여, 남녀 통합리그로 구성되어 여자농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장이었던 플레이오프 티켓은 올해부터 8장으로 늘어나 경쟁 가도를 달린다. 중위권 팀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져 팬들의 흥미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는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올해는 작년과 어떤 점이 다를지, 지금부터 대장정을 예상해 보자.

고려대 - 2014년 대학농구리그 1위(16승 0패)

감독: 이민형



‘고려천하’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2014년. 작년 끝말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두목호랑이’ 이승현의 부재가 우려됐지만, 지난 16일 연세대와의 개막전에서 강상재의 활약으로 4번 자리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차세대 괴물 센터’ 이종현을 필두로 올 시즌 역시 고려대의 끝말은 대학 최강이라 할 수 있다. 유일한 약점이라 할 수 있다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표팀에 차출될 고학년 선수들의 부재. 올 시즌 드래프트 후 팀을 떠날 이동엽과 문성곤의 부재를 대비해 최성모와 김낙현 등 가드진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한 이민형 감독. 주전과 어린 선수들의 어울림으로 대학리그 사상 첫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바이다.

경희대 - 2014년 대학농구리그 3위(12승 4패)

감독: 김현국



2012년과 2013년에 정규리그 1위를 하며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경희대는 작년 3위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배수용의 졸업으로 블루워커의 자리를 누가 채워줄 지 의문이다. 그래도 올해 4학년이 된 고교 1순위 코트 위의 야전사령관 최창진과 3점 폭격기 한희원, 경희대의 기동 김철욱은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 호흡만 조금 더 가다듬으면 김민구-김종규-두경민의 ‘경희대 3인방’의 뒤를 이을 3인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희대는 전 포지션에 걸쳐 좋은 백업들이 많아 주전들을 잘 뒷받침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시즌 연세대의 전력누수가 심하다는 단점은 경희대에겐 아주 기쁜 소식이다. 과연 경희대는 다시 한번 ‘경희천하’를 이어 갈 수 있을까.

연세대 - 2014년 대학농구리그 2위(13승 3패)

감독: 은희석



에이스급 선수가 셋이나 빠져나가며 전력 누수가 심한 가운데, 명쾌한 해답이 보이지 않아 많은 팬의 우려를 사고 있다.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김준일의 공백은 크다. 주전 센터로 예상되는 박인태는 확실히 김준일에 비해 묵직함이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원이 많아 물량공세가 가능하지만 고려대, 경희대 등 우승을 다룰 강팀에게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가드진은 상황이 낫다. 주전으로 나설 허훈-천기범 모두 능력 있는 가드다. 하지만 둘 중 하나가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내세울 백업이 마땅치 않다. 결국 기댈 것은 제대로 한 시즌을 시작하는 은희석 감독의 지도력이다. 연세대는 항상 화려한 멤버에 비해 내실 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멤버의 화려함이 예전보다 덜 하더라도 끈끈하게 뭉친다면, 오히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동국대 - 2014 대학농구리그 4위 (10승 6패)

감독: 서대성



동국대는 2012시즌, 김윤태(안양KGC) 등 탄탄했던 가드진에 이대헌(198cm, C), 서민수(200cm, F)의 영입으로 포스트진을 보완하며 ‘만년 8위’에서 ‘4위’까지 발돋움한 바가 있다. 그러나 김윤태 졸업 이후 가드진에서 항상 2%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제물포고 출신의 ‘대어’ 변준형(187cm, G) 영입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가 스피드와 센스가 좋은 ‘공격형 가드’라는 것은 또 하나 주목할 점. 새내기에게 다소 큰 짐이 지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3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셈이다. 지난 시즌, 2% 부족한 가드진으로도 정규리그 4위에 이름을 올렸던 동국대. 올해 드디어 고려-연세-경희의 ‘3강 체제’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 있을까.

한양대 - 2014년 대학농구리그 5위(9승 7패)

코치: 이상영



한양대의 전술인 런&건을 살리면서도 내·외곽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해줬던 정효근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게 급선무다. 아무리 한양대가 빠른 농구, 가드 위주의 농구를 구사한다 해도 중위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확실한 높이 역시 필요하기 때문. 작년 동국대가 4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상위권 팀을 잡아냈기보다는 중위권을 상대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 프로팀의 기대를 받고 있는 주장 한상혁, 한상혁과 함께 누군가 '난세의 영웅'이 탄생할지 지켜보자.

상명대 - 2014 대학농구리그 7위(8승 8패)

감독: 이상윤



상명대에게, 그리고 이상윤 감독에게 2015시즌은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듯하다. '반짝 돌풍'이나, 아니면 '불박이 중위권'이 될 것이냐가 이번 시즌 성적으로 가를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2년 간 이상윤 감독이 상명대에 몰고 온 변화는 컸다. 지난 시즌에는 이현석(서울SK)이 상명대 출신으로는 첫 1라운드 지명선수가 됐다. 그러나 에이스 이현석은 떠났다. 새로운 상명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명대는 높이가 낮은 편이지만 우수한 조직력으로 대학리그의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높이를 상당히 보완했고, 신입생 역시 '즉시전력감' 중심으로 영입했다. 기존 멤버 류지석(200cm, C)과 박봉진(193cm, F), 정성우(180cm, G) 등과 신입생 간의 조화가 팀을 굳건한 중위권의 입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국대 - 2014년 대학농구리그 6위(9승 7패)

감독: 황준삼



최부경의 졸업 이후, 건국대는 결코 높이에서 강점을 가지는 팀은 아니었다. 가드와 포워드를 주축으로 하여 속공과 외곽 슛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이런 팀 컬러는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학년 때부터 팀의 한 축을 맡아왔던 유영환, 내·외곽에서 전천후 득점이 가능한 장문호, 작년 팀의 에이스로 떠오른 공·수의 핵심 김진유가 건재하다. 여기에 신체조건이 좋은 신입생 서현석이 대학무대에 연착륙한다면 어느 팀에도 꿀리지 않을 공격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포인트가드의 부재다. 좋은 약기는 많은 데 이들을 지휘할 지휘자가 없다.

중앙대 - 2014년 성적: 8위(6승 10패)

감독: 양형석



중앙대가 3년간의 김유택 체제를 끝마치고 새로운 양형석 체제로 돌입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팀의 재건이다. 한때 52연승을 달리며 대학리그 최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이후 순위가 3-3-7-8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당장 반등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선수 구성 중 저학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그렇다고 중심을 잡아줄 선수도 얼마 없다. 평균 10득점 이상을 기록해 본 선수도 주장 조의태 뿐이다. 하지만 신입생 중 강병현과 박원종 등 가능성을 가진 선수들이 있으니 무리하게 성적을 내려하기 보다는 서서히 리빌딩을 하면서 승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아 보인다.

명지대 - 2014대학농구리그 9위(5승 11패)

감독: 김남기



명지대는 꾸준히 '허슬'이 좋은 팀 중 하나다. 그러나 항상 성적이 아쉬웠다. 지난해에도 '만년 꼴찌'로 1년 여 동안 패배의 수렁에 빠져 있던 성균관대에 시즌 첫 승을 안겨준 팀이 바로 명지대였다. 그러나 지난 시즌 초반,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에 이어 김남기 감독 체제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경기력에 안정감이 더해진 모습이다. 지난 시즌, 에이스 김수찬에게 공격이 몰리자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조직력 강화에 힘썼던 김남기 감독이다. 공개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명지대의 특성상 '대어'급의 선수 영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김남기 감독의 지휘 하에서 얼마나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볼 만하다.

성균관대 - 2014대학농구리그 10위(4승 12패)

감독: 김상준



작년 4승을 올리며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졸업한 배재광, 김만중, 백민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다. 세 선수의 평균 득점이 33.5득점으로 작년 성균관대의 평균득점(64.8)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드는 완전히 새로 판을 짜야 할 판이고, 그나마 포워드가 사정이 낫다. 졸업반인 김민석·이하림과 2학년이 되는 최우연의 분발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올 시즌 규정이 바뀌며 플레이오프가 8강까지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성균관대가 팀을 성공적으로 리빌딩하면서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단국대 - 2014대학농구리그 11위(3승 13패)

감독: 장봉군



단국대는 작년 11위로 마무리했다. 2012년도 7위, 2013년도 9위에 비해 점점 추락하고 있는 현실. 09학번 김상규와 10학번 신재호가 2년 연속 가져갔던 득점왕의 부재 탓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작년 리바운드상을 수상하며 떠오르는 셋별이었던 하도현의 휴학이 겹치는 약재도 생겼다. 하지만 작년 시즌 부상으로 거의 게임을 못 뛰었던 김주윤과 전태영이 합류하면서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윤은 홍순규와 더불어 단국대의 골 밑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전태영은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박찬영과 승부사 기질을 보여준 유재성과 더불어 원종훈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가드진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포워드가 다소 약한 모습이지만, 작년 시즌 교체 출전하여 자신보다 큰 선수들과의 몸싸움을 피하지 않고 골 밑을 지켜주었던 오승현의 활약도 기대된다.

조선대 - 2014대학농구리그 12위(1승 15패)

감독: 이민현



조선대는 다른 팀에 비해 4학년 박여호수아 단 한 명만이 졸업함으로써 전력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작년 시즌 모든 경기에서 꾸준히 활약한 김동혁과 박준우가 박여호수아의 공백을 메워 팀을 잘 이끌어 줘야 한다. 하지만 자유투와 슛 성공률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학년이 된 이승규의 활약도 기대된다. 게다가 신입생 조민기의 영입은 조선대의 신의 한 수였다. 조민기는 홀로 조선대의 골 밑을 지키던 이호연의 짐을 덜어주며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시즌 홈에서 어렵게 얻은 1승을 뛰어넘어 이번 시즌은 2승 이상에 도전해 볼 만 하다. 조선대는 과연 꼴찌 탈출을 할 수 있을까.

* * *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전력이 좋아진 팀과 약해진 팀이 있다. 그러나 긴 시즌 동안 여러 변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은 예상으로 그칠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17일, 작년 최하위 조선대는 명지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참가 이래 가장 빨리 첫 승을 거두며 이변을 예고했다. 대학 선수만의 풋풋함과 젊음이 가득한 플레이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대장정의 막을 올린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팬들의 사랑을 받고 더 재미있는,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글/

고금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혜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대학배구리그 주장 말.말.말!

기다리고 기대하던 봄 배구! '2015 대학배구리그'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시즌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 A조와 B조로 나뉘어 초반에는 같은 조에 속한 팀끼리 리그를 치르다가 후반부에는 상대 조에 속한 팀과 교차하여 리그 경기를 하는 인터리그가 도입된 것이다. 경기 시간 또한 기존보다 늦춰진 오후 5시라고 하니 방과 후가 무료했던 대학생이라면 대학배구리그가 펼쳐지는 경기장으로 봄 소풍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그에 앞서 이번 리그 시작과 함께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온 각 팀 주장들을 만나보았다.



경기대 김영민

이번 시즌 반드시 이기고 싶은 팀과 이유

인하대요. 작년에 인하대하고 한 다섯 번의 경기 중 한 번만 이겨서 올해에는 꼭 우세한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팀 컬러

역시나 빠른 플레이가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올해는 파이프 공격이 더 보완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화려한 공격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 키 플레이어

올해 신인선수인 레프트 포지션인 황경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각오 한 마디

시즌을 앞두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두통도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해져서 힘들긴 하지만 3학년 후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A조 - 경기대, 명지대, 충남대, 한양대, 흥익대]

명지대 홍신현

비시즌 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

저희 팀의 약점이 리시브이기 때문에 그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신장이 평균적으로 큰 편이라 여기서서 블로킹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어요.

팀 컬러

아무래도 저희 팀이 이번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파이팅인 것 같아요. 특히 4학년들이 솔선수범하려 노력 중이에요. 특히 저희 팀은 라이트, 세트, 리베로 3학년 후배들이 이번에 주전으로 처음 뛰게 되어서 더욱더 4학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현대건설 한유미 선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주장이었던 시절에 솔선수범하니까 자기 밑으로 다 잘 따라 주었다고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런 주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팀 키 플레이어

아무래도 이번부터 주전으로 투입되는 3학년 선수들이요. 이번에 처음으로 뛰니까 다른 팀들은 생소할 텐데 실력도 출중하고 졸업한 형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들입니다.

각오 한 마디

부상자 없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경기 후회 없이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이번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명지대학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실망이 아닌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충남대 권영일

비시즌 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

이번에 주전 라인업에 변화가 있어서 주로 조직력과 서브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 반드시 이기고 싶은 팀과 이유

특정 팀은 따로 없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주요하다 보니 결과보다는 게임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하고 파이팅 있게 하겠습니다.

팀 컬러

무엇보다도 다른 팀들보다 단합된 모습이 강점입니다.

이번 시즌 목표

목표는 우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입견들이 있으신데 그 편견을 지울 수 있는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한양대 김홍찬

비시즌 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

아무래도 세터가 신입생이어서 세터와의 호흡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진성이가 신입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선배들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시즌 반드시 이기고 싶은 팀과 이유

중부대요.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중부대에게 패한 적이 있기에 꼭 이기고 싶어요. 다 이겨가는 경기도 아쉽게 진 적이 있어서 억울해서라도 이번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키 플레이어

저는 재회를 뽑고 싶어요. 키도 크고 신체조건도 좋는데 파이팅도 좋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선수예요. 경기 중 힘든 상황에서 득점으로 활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각오 한 마디

주장으로서 저의 각오는요. 우선 한양대학교를 한 해 동안 잘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제 포지션에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할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잘하고 대학에도 잘 진학했듯이 열심히 해서 프로에도 잘 가고 싶어요. 1라운드로 가서 한양대의 명예를 살리겠습니다.



[B조 - 경남과기대, 성균관대, 인하대, 조선대, 중부대]

홍익대 이시문

이번 시즌 반드시 이기고 싶은 팀과 이유

인하대요. 지난 시즌 리그 챔피언 결정전 때 아쉽게 패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익대는 A팀이고 인하대는 B팀이라 9월이나 돼야 만날 수 있지만 꼭 이기고 싶어요.

팀 컬러

홍익대는 신장이 작지만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움직임이 강점이예요. 또한 끈질긴 조직력이 뚜렷한 팀 컬러입니다.

우리 팀 키 플레이어

이번 신입생인 한성정 선수요. 주전을 뛰는 다른 선수들은 이미 대학 리그 경험이 있지만 성적이는 1학년임에도 바로 경기에 투입되어 부담감이 클 텐데 그 점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오 한 마디

동계 훈련 때 다른 팀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홍익대는 특히 정말이 악물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팬 분들께서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경남과기대 김영문

비시즌 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

1학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팀을 새롭게 만들려다 보니 기본적인 콤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세터도 새로 들어왔고 공격수도 대부분 1학년이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맞춰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팀 키 플레이어

1학년 세터 박형경. 형경이만 잘하면 저희 팀은 정말 잘 돼요. 요즘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패기 있게, 1학년답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고 혼나도 괜찮으니까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여기저기 부딪쳐보면서 배우길 바라요.

이번 시즌 목표

일단은 리그 예선 통과, 4강이예요. 이번 시즌 경기 수가 더 많아 졌는데 게임을 하면서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경험도 쌓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새롭게 구성된 팀이고 이제 시작이니깐 게임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겨야죠. 우승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마디

작년에는 전패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저희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올해 신입생 아이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좋으니까 경기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응원 해주세요!





성균관대 김병욱

이번 시즌 반드시 이기고 싶은 팀과 이유
홍익대학교. 저희 전 감독님께서 현재 홍익 대학교에 계신데 꼭 이겨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홍익대의 빠른 플레이에 따라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철저히 분석해 준비하겠습니다.

팀 컬러

저희 팀 컬러는 약착같은 수비예요. 리베로는 당연히 0순위고요. 공격수 너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팀 키 플레이어

세터 황택의 선수와 레프트 이시우 선수입니다. 세터가 흔들리지 않고 게임운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터가 그날 경기를 잘 이끌어주면 경기는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이시우 선수는 리시브를 하면서 공격까지 전담하고 있는데 그 둘을 모두 다 하다 보니 코트 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포지션이에요. 이시우 선수가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희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목표

저희는 당연히 우승 하나를 보고 달립니다. 우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끼리 뽕뽕 뭉쳐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투지력 넘치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소신껏 춘계대회와 추계대회, 2관왕을 하고 싶습니다. 정규리그보다는 정식 대회로 시작과 끝을 창대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하대 황두연

이번 시즌 반드시 이기고 싶은 팀과 이유

성균관대를 이기고 싶어요. 작년에는 우승은 많이 했지만 성대와 한 번밖에 시합을 하지 못했는데 그 한 번의 시합에서 진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팀 키 플레이어

1학년의 이호건, 이상혁, 그리고 저예요. 시합 때 상혁이와 제가 리시브를 잘 해주고 호건이가 토스 플레이만 잘해준다면 공격수 경복이와 성민이는 좋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셋이 그 사이의 연결만 잘 해주면 되는 거죠!

이번 시즌 목표

우승이에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야죠. 우승에서 우승으로 팀원 모두 부상 없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각오 한 마디

제가 주장을 맡은 만큼 작년보다 더 좋은 기량을 보여드릴 거고요.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목표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조선대 손태훈

비시즌 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

일단 주전 멤버 몇 명이 부상으로 팀 훈련을 함께하지 못해 베스트 멤버 7명이 함께 손발을 맞춘 지 2-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동계기간에는 리시브나 이단토스, 서브를 중점적으로 해 개인 기본기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습니다.

팀 컬러

선수들 모두 신장이 작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낮고 빠른 플레이를 주문하세요. 기본기를 중점으로 끈질긴 배구, 마지막은 승리로 장식하는 배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팀 키 플레이어

2학년 레프트 장슬륜과 세터 조철희 선수 두 명이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요. 우선 슬륜이는 저희 팀 수비형 레프트로서 리시브와 수비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주 공격수가 없는 저희 팀을 철저히 얼마나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풀어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오 한 마디

7명이 뽕뽕 뭉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 되겠습니다.



중부대 김동훈

비시즌 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

비시즌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은 팀플레이입니다. 호흡을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 반복적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팀 컬러

저희는 선수들의 신장이 작지만 빠른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선수들의 투지력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 팀 키 플레이어

지원우와 함형진 선수입니다. 지원우 선수는 중부대학교를 이끄는 팀 내 에이스로 팀 특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원우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 경기를 풀어나가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함형진 선수는 그 반대편의 포지션에서 수비와 리시브를 전담하는 선수이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이번 시즌 목표

목표는 당연히 리그 우승입니다. 지난 시즌 매년 우승을 앞두고 아쉽게 놓쳤는데 이번 시즌에는 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에 떠나는 자전거 나들이

Life is like riding a bicycle. To keep your balance, you must keep moving.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 중 일부이다.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한다.

인생도 자전거를 탈 때와 같이 끊임없이 페달을 돌려야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움직였을 대학생들에게 봄날의 자전거 라이딩을 추천한다.



[자전거로 건강과 지구환경을 지키자]

자전거는 온 몸의 근육을 쓰는 유산소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많다.

1시간 빠르게 걸었을 경우 300kcal, 테니스 480kcal의 열량이 소모 되는데 자전거 타기는 같은 시간에 약 700kcal 이므로 체중 감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타면 폐활량이 증가하므로 심폐기능의 향상, 하체 근력의 발달, 균형 감각을 높여 준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들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다.

[자전거 종류와 용도를 알고가면 쉽다]

MTB	산악용 자전거로 산악 능선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특수 설계됨
Downhill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빠른 속도에서도 제어가 가능
Hybrid	산악용 자전거와 로드형 자전거의 혼합형으로 시내 주행 및 하이킹에 적합
road (사이클)	자전거의 스포츠 카로 불리며 빠른 스피드, 장거리 주행에 적합
BMX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기분을 내는 듯한 자전거로 핸들 360회전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로 이동시 용이
2인용 자전거	보통 2인승이며, 그 이상의 인원이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있음

[추위를 피해 실내 데이트를 즐겼다면, 이젠 밖으로 나가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보자]

연애 고수가 추천하는 봄날의 여의도 데이트 코스

여의도는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데이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여의도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많으므로 개인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tip!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1시간당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 자전거 반납 후, 연인과 손을 잡고 여의도 한강변을 걷는다면 흥풍 부럽지 않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솔로 3년차, 외로움도 잊게 해줄 서울숲 자전거 라이딩 코스

종량천을 따라 서울숲 까지 가는 자전거 길은 정말 아름답다. 널찍한 종량천 자전거 길은 주변 꽃들과 나무들로 가득 어우러져 있어 자연 그대로를 만끽할 수 있다.

가는 길마다 벤치나 휴게시설이 있으니 잠시 멈추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여유를 가져보자.

tip! 혼자하는 자전거 라이딩이 외롭다면 자전거 동아리를 추천한다.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석촌호수 벚꽃 자전거 코스

석촌호수의 벚꽃 자전거 코스는 어린이, 초보자들이 타기에 쉽고 안전하다.

공원 산책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으므로 외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자.

tip! 석촌호수 벚꽃 축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야외 전시회 및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봄날의 자전거,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

최근 자전거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안전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아래 5가지 수칙만 잘 지킨다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① 자전거 이용시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자.
- ②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 ③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자.
- ④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도록 하자.
- ⑤ 이어폰을 낀 채 자전거를 타지 말자.

[자전거 타는 바른 자세]

*안장의 높이는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한다.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이 바라 본 대학스포츠리그

- 비체대생 : 이보미(단국대 부동산학), 권수정(KUSF 대학생 기자단 4기, 5기/경성대 광고홍보학),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5기, 6기/성균관대 사회학)

2015 대학스포츠리그 개막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각 대학팀들은 탐색전을 끝내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지난 2014시즌이 막을 내리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더 나은 대학스포츠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이번 시즌은 좀 더 보완되고 발전된 리그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지난 1월 호와 3월 호에서 대학스포츠의 주인공 학생선수들과 그들을 이끄는 코치진들의 입을 통해 그들이 느낀 대학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4월 호에서는 전국 각지의 경기장을 누비며 대학스포츠를 취재해온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이 모여 대학스포츠리그에 대한 느낌과 경험들을 들어보았다. 이번 호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 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체대생과 비체대생으로 파트를 나누어 진행했다.

* * *

PART 1.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

비체대생 편

더 이상 스포츠는 체대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기 다른 전공이지만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아래 모인 이보미 기자(단국대 부동산학/ 이하 보미)와 권수정 기자(경성대 광고홍보학/ 이하 수정), 그리고 이규호 기자(성균관대 사회학/ 이하 규호). 매번 경기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 경기를 보고, 경기 소식을 전하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기자단으로서 활동한 이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Q)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보미 안녕하세요. KUSF 기자단 2~4기로 활동했고, 현재는 STN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미입니다.

수정 반갑습니다! 저는 경성대 광고홍보학을 졸업하고, KUSF 기자단 4기와 5기로 활동했습니다.

규호 저는 KUSF 기자단 5, 6기로 활동한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규호입니다.

Q) 현재 다양한 종목을 취재할 수 있는 기자단이 많이 있는데 굳이 '대학스포츠 기자'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미 대학생 때 진로 고민을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생각해서 대한축구협회 명예기자를 했고, 그 후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기자단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수정 프로구단에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1군보다는 2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인선수를 취재하게 되었고, 그 신인선수들의 대학재학시절 취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스포츠에도 관심이 생겼죠. 대학선수들에서 보물을 발견해 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알게 되었고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규호 원래 프로스포츠를 좋아했는데 프로스포츠를 이해하기에 앞서 대학스포츠를 먼저 보면 더 깊게 스포츠를 이해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어요.

Q) 비체대생으로서 대학스포츠리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나요?

A) 수정 '대학스포츠 수준이 낮아졌

다.', '대학과 프로는 다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선수들마다 다르겠지만 수준이 낮다고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당연히 프로 전 단계이고 더 큰 무대를 밟아보지 않았기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해요. 대학스포츠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프로세계에서도 이름을 날립니다. 제가 취재했던 선수들 중 야구에 이지찬, 농구에 정효근 이재도, 축구에 안용우 선수는 대학시절에도 출중했지만 프로 입단 후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며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학스포츠의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결실이 꽃피는 단계가 프로라 보면,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그런 단계가 대학스포츠 단계라고 생각해요.

규호 처음 접했을 때는 좋아하는 친구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간 목적이 컸지만 경기를 보다보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이런 대학생들의 문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돼요.

Q) 기자단 활동 전에 본인의 학교에서 대학스포츠리그가 열리고 있는

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알고 계셨다면 그 인식은 어땠나요?

A) 보미 원래 어려서부터 축구에 관심이 있었는데 학교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학교에서 대학리그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축구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경기장에 학부모, 의료진 정도만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쓰러웠죠.

수정 경성대는 '야구부'와 작년에 새로 창단된 '배구부'만 있어서 아무래도 대학야구 쪽에 시선이 많이 갔어요. 물론 경성대 야구부가 제 신입생시절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규호 대학스포츠 리그가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경기가 수원 캠퍼스에서 열리다 보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분석도 없었죠. 대학스포츠는 변두리에 있는 스포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Q) 대학스포츠리그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경기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A) 수정 대스협 기자단을 하면서 '전국 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대스협 기자단으로 취재하면서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대신 평소 훈련 때 야구 훈련장에 올라가서 훈련을 본적은 있었죠. 가끔은 감독님께서 여기까지 보러 왔냐고 초코파이를 주셨던 기억도 있네요.(웃음)

규호 비체대생이어서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좋아하는 친구(여학우)가 농구를 좋아해 같이 보고 싶어서 대학스포츠를 보게 되었어요.

Q) 2014대학스포츠리그에서 농구·배구 서포터즈가 출범하면서 대학스포츠리그에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보미 확실히 서포터즈가 홍보를 하니까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일단 관심을 끄는 것은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

로 더 많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외부로의 언론노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프로에서 축구협회나 구단이 미디어 관리를 하는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미디어노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Q) 현재 대학스포츠 농구와 배구 종목에서 Home & Away(리그제)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Home & Away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보미 홈&어웨이가 있기 때문에 응원문화가 정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자단과 각 학교의 서포터즈의 참여로 점점 더 대학스포츠 리그가 홍보되고, 관심이 찾아와 응원을 하면서 학교응원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 대학스포츠에 토너먼트제와 홈&어웨이 즉 리그제가 존재하는데, 전 아무래도 리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토너먼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의 실수로 바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존재해요. 그날의 컨디션, 불감각 그리고 동료와의 호흡이 중요한 요인이기에 한 번의 경기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프로와 같은 리그제를 통해서 신체리듬을 맞춰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규호 흥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돼요. 학교에서 열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요. 종목특성상 홈&어웨이가 어려운 종목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만 급격하게 바꾸기보다 점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Q) 기자단을 하면서 많은 경기장을 다니셨을 텐데 각 대학 경기장에서 대학스포츠 리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셨나요?

A) 보미 특히 지난 시즌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서포터즈가 생긴 후로 재치 있는 홍보 포스터와 응원을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인상 깊었어요. 경기에 있어서는 대학배구에서 중부대와 같이 주목을 못 받던 팀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절대 강자 절대약자는 없구나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수정 명경기도 많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점은 제가 취재했던 선수 대부분이 프로에 입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맷다는 말도 듣기도 했어요. 때로는 스포츠 칼럼니스트들이 찾지 못했던 선수를 취재하고, 또 그 선수가 프로지명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가장 기분이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규호 이태현 씨름 감독님 인터뷰 진행했을 때요. 씨름 분야에서 저명한 분이어서 꼭 하고 싶은 욕심이 컸고, 일단 무작정 컨택을 했어요.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환영해주시고, 긴 시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Q)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에게 매년 말, 상을 주고 격려를 하며, 학생선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A) 수정 요즘은 운동선수도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고, 공부병행은 인성적인 면과 차후 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한 선수가 프로에서 전술이해도가 높고, 인터뷰 시 화려한 언변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인성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프로생활 도중에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공부를 해온 선수라면 더 많고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규호 규정이 애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사라지기 위해서 단점이 있더라도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5기, 6기/성균관대 사회학)



이보미(단국대 부동산학)

Q) 정식 기자가 된 후, 대학스포츠 리그를 바라봤을 때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A) **보미** 대학스포츠의 묘미는 좀 더 가까이서 경기를 보고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대학스포츠는 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생부터 프로의식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할 것 같아요.

Q) 대학스포츠의 매력을 말씀해주세요.

수정 풋풋함과 열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선수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풋풋함과 인생에서 제일 열정적일 때가 아닐까요? 프로입단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깐요. 물론 프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게 매력으로 와 닿는 것 같아요. 사회인이 대학생을 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Q) 대학 농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매체의 노출도 크고,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A) **규호** 종목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농구가 개인 의존도가 큰 종목이예요. 때문에 대학 선수들이 프로로 왔을 때 즉시전력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프로에 관심 있는 팬들이 다음에 프로에 올 선수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오는 경우도 있고, 과거 대학농구 부흥기 시절의 온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대학스포츠리그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 **보미** 대학 경기들의 기록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기록실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응원하는 팀과 선수들의 기록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게

되요. 앞일을 위해서도 데이터 구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정 프로구단에서 관중을 끌어오기 위한 방법에는 콘텐츠 생성과 이벤트, 일정 홍보가 있어요. 대학스포츠 채널이나 기사를 통해 대학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관중동원 면에서는 미미한 것 같은데 경기 일정이나 대회 일정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각 학교 스포츠잡지 페이지가 있는 만큼 연합을 맺어서 경기일정을 홍보한다면 더 많은 관중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규호 대학스포츠는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스포츠의 하부적의 요소로 생각하지 말고, 대학스포츠는 대학스포츠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 * *

경기를 뛰는 선수도,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도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정 하나만으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경기장을 뛰어다녔을 대학스포츠 기자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의 설립과 함께 대학스포츠를 취재하면서 대학스포츠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한 이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대학스포츠에 박수를 보낸다. 현재 KUSF 대학생 기자단 제8기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오늘도 대학스포츠 경기장으로 향한다.

글/ 박수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임예람(KUSF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사진/ 임예람(KUSF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본인 제공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폰, 오프 날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일 이야기를 할 때면 여지없이 반짝이는 눈. 워커홀릭은 절대 아니라는데, 심히 의심스럽다. “스포츠PD는 하지마”라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벤쿠버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등 매 대회 중계 엔딩의 순간,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만감의 교차에 눈물마저 쏟았다는 그.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땀으로 스포츠의, 스포츠에 의한, 스포츠를 위한 중계를 꾸려나가는 ‘스포츠판 링컨’, STN 김지훈 스포츠 프로듀서가 4월호의 주인공이다.

큰 물고기가 되려면 바다로 나가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과 편안한 근무환경. 그 어느 것도 꿈 위에 설 수는 없었다. 졸업 후 대학교 방송실에서 교직원으로 생활한 1년. 대학교에서 카메라를 전공했고, 한때 포항 MB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메라맨’을 동경했던 김지훈 PD, 그러나 카메라와는 서먹하기만 했던 교직원 생활.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물로 나가보라’고. 그 길로 퇴직금을 챙겨 들고 상경했다. “대학생들이 스펙, 취업 이런 압박감에 눌러 살잖아요. 저는 졸업도 했고, 직장도 그만두고 올라와 버린 상황인 거예요.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비싼 데다 수료한다고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고시원에서 (돈을) 쪼개가며 생활했어요.” 당시 김지훈 PD가 수료하던 과정은 ‘카메라맨’과정. 그런 그의 눈에 나비의 날갯짓이 눈에 띄었다. “VJ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잡되, 연출능력도 있는. 덩달아 욕심이 생겨서 연출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의 연출공부는 2년 뒤, 큰 바람이 되어 그를 PD라는 자리에 올려놓는다. “입사하고 2년 동안 카메라맨이었는데, 프로그램도 제작했어요. ‘카메듀서’였던 거죠. 회사에서 그런 걸 원했는데 마침 연출을 배워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다 2년차에 아예 피디로 보직 이동이 됐죠. 사실 제가 카메라맨들이 선호하는 PD 유형은 아니예요. 카메라를 아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웃음). 스포츠 쪽에서는 카메라맨 출신 PD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림을 알기 때문에 적응이 훨씬 빨라서죠.”

‘열심히’보다는 ‘잘’, 연습하는 생방송도 있나요?

‘열심히’보다 ‘잘’. 냉혹한 스포츠의 세계를 대변하는 데 이만한 말도 없다. 예측 불가한 ‘현장감’ 때문에 스포츠계에서는 따끈따끈한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편이다.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습할 기회가 부족해요. 연습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제일 좋은 건 동경만 하지 말고 직접 경험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방송 관련)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직업체험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죠. 솔직히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보다는 '잘 하겠습니다'가 좋아요. 시청자들은 결과만 보거든요. 막연히 미디어 전공자, 신방과 출신이란 이유로 방송일을 지망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현장감’에 울고 웃고

스포츠 PD와 타 분야 PD와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아무래도 ‘현장감’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K리그)클래식 인터넷 중계할 때였어요. 축구는 리포터가 사전인터뷰, 수훈인터뷰 사이에 하프타임 때 관중 인터뷰를 해요.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하프타임 인터뷰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리포터가 사라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인터컴도 안 받아. 뒤에서 우리는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보니까 난로 앞에서 쉬다가 잠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캐스터가 경기 상황 설명을 길게 빼도록 대처했지만 그건 굉장히 큰 방송 사고죠.” 이밖에도 2013년 분데스리가 중계 당시, 기상상황이나 위성 상태 때문에 연결이 끊기거나, 관중이 휴대폰 충전을 위해 중계 모니터 콘센트를 뽑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았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라고. “방송 사고가 나도 시청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PD고요. 뒤에서는 난리가 나도 송출되는 화면에 그게 절대로 표출되어서는 안 돼요. 방송 사고뿐 아니라 스포츠이기 때문에 변수가 항상 많아요. 제 시간에 끝날지, 연장을 갈지, 아무도 몰라요. 큐시트에서 편성된 시간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현장 피디의 재량인 거죠. 피디가 무너지면 그 밑의 15명, 20명의 스태프가 함께 무너져요. 책임감을 갖고 빠르게 최상의 판단을 내려야 해요.”

그 남자의 사생활

축구와 야구는 3월부터 10월이 시즌이라고 본다면, 농구, 배구는 반대로 10월부터 3월이 시즌이다. 여타 크고 작은 스포츠 대회도 향시 대기 중이다. 스포츠 PD에게 1년 내내 시즌인 셈이다. “방송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 시간을 좀 포기해야 해요. 한 번은 하루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4개 경기 중계를 한 적도 있어요. 벤쿠버 때나 인천 같이 큰 경기 시즌에는 잠을 거의 못 잔다고 봐야 하고요. 자박야 2, 3시간 정도죠. 시간이 지나서 속보성이 떨어지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냥 편집하다 사무실에서 자는 거죠.” 그래도 근무는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실 땀 쉬어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서 실 때 스노보드나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이런 것들 하고, 제트스키는 자격증도 있어요. 스포츠는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다고 스포츠랑 하루 종일? 그건 아니에요. 저도 드라마 좋아해요. 압구정 백야 그런 거 보고(웃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실 때도, 이동할 때도 스포츠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 “중계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전 경기 기록이나 트레이드 현황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정보들을 대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얻는 편이에요. 다른 방송도 보면서 그 PD의 연출 성향을 저희 것과 비교하고, 새로운 걸 구상하기도 하고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김지훈 PD가 처음부터 스포츠 계열에 종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입사하던 2008년 당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고, 당시 STN은 상당히 작은 회사였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STN에 출사표를 던지며 초창기 멤버로 STN과 함께했다. “사실 여기 말고 두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STN을 추천해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래를 보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입사하고 많이 힘들었던 때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08년 베이징, 2010년 벤쿠버, 2012년 런던, 작년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까지 회사가 커지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인터넷 중계’라는 새 지평을 연 회사가 저희 회사이기도 하고요. 회사가 커가는 걸 보면서 스스로 추진력을 얻고 저도 같이 성장했던 거죠. 총괄 메인 프로듀서로서 제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고요. 올해는 SK티브로드에 IPTV 채널 런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목표가 됐네요.”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국제대회 중계만 벌써 여러 개. 그러나 여기서 정체될 그가 아니다. “여전히 회사를 더 키워나가고 함께 성장하는 게 제 목표예요. 표면만 봤다면 영영 못 봤겠지만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면 길이 보여요.”

글/ 이혜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가장 짜릿했던 2014년 대학스포츠의 순간”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지난달 16일, 대학 스포츠 개막전에는 많은 관중이 찾아 경기를 즐겼다. 지난 시즌 오랫동안 기억될만한 명승부를 펼친 덕분에 대학 스포츠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대학 스포츠 챔피언결정전의 짜릿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9월 7일,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2014 대학농구리그 챔피언을 결정하는 경기가 열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1,2차전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양 팀은 1승 1패로 3차전을 맞이했다.

‘영원한 라이벌’간의 대결답게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1쿼터 경기 초반은 김기윤과 김준일의 활약으로 연세대가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동엽의 3점 슈트로 포문을 연 고려대는 교체된 김지후와 문성곤의 외곽포가 터지며 17-16점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연세대 김기윤의 3점 슈트로 고려대에 맞서며 21-21점으로 1쿼터를 마무리했다.

2쿼터는 고려대 문성곤이 공격을 주도해 3점 슈트를 연달아 터트리며 연세대의 강한 수비를 무너트렸다. 또한 식스맨 김낙현이 연속 5득점을 성공시켜 41-31, 10점차로 리드하며 전반을 끝마쳤다.

경기 후반 들어 고려대의 이승현이 내,외곽을 넘나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63-49, 14점 차로 앞서가며 3쿼터를 마무리했고 이어진 4쿼터에서 리바운드와 속공에 이어 골밑 득점까지 성공시킨 이승현은 고려대의 승리를 확실하게 이끌었다.

연세대는 허웅이 자유투와 마지막 3점슈트를 모두 성공시키며 반전을 노렸지만 고려대의 기세를 막지 못해 경기는 90-74점으로, 고려대가 2연패를 달성했다.

최다득점을 기록한 고려대 이승현은 이번 대회 MVP를 차지하며 코치, 감독,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4월부터 4개월간 치러진 2014 대학배구리그의 챔피언 결정전이 8월 27일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경기대학교와 맞붙어 패한바 있는 인하대학교는 아쉬움을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인하대 황승빈 세터의 서브로 시작된 1세트는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6-6의 상황에서 홍익대의 공격범실로 인하대가 리드하기 시작했다.

인하대는 박원빈의 블로킹 포인트와 함께 초반부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6점차로 앞선 채 1세트를 마무리지었다.

2세트는 경기 초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양 팀의 기 싸움이 느껴졌다. 매 포인트마다 긴 랠리가 이어지며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쳤다.

인하대 1점 앞선 22-23의 상황에서 교체 출전한 홍익대 채영근이 가로막기 득점으로 동점상황을 만들어냈고 뒤이어 블로킹으로 역전에 성공, 25-23으로 홍익대가 2세트를 가져갔다.

3세트 초반부터 홍익대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인하대를 리드하기 시작했다. 인하대는 세트 후반 21-20로 역전까지 성공했으나 홍익대의 매서운 공격에 무너지며 22-25로 3세트를 내줬다. 세트 스코어 1대2로 벼랑 끝에 몰린 인하대는 초반부터 블로킹으로 크게 앞서 나갔다.

이에 질세라, 연달은 득점으로 살아난 홍익대는 2점차로 따라 붙었지만 인하대의 속공과 가로막기 득점으로 6점을 앞서나가며 4세트를 마무리 했다.

4세트를 인하대가 가져가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하대는 4세트 기세에 힘입어 김성민의 선취점을 올리며 5세트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홍익대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 붙었으나 인하대의 깊은 수비벽을 넘지 못한 채 고전했다. 12-14점, 마지막 매치포인트에서 인하대 나경복의 스파이크로 마지막 1점을 올리며 2014 대학배구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달부터 여자 대학농구리그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남자 대학농구부는 월, 화, 수에 진행되며 목, 금엔 여자 대학 농구부의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U대회, 세계 농구 선수권대회, 아시아 선수권대회로 인해 대학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학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에 비해 선수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박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프로 데뷔를 준비하는 대학 선수들인 만큼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이 올 한 해도 레전드 매치들이 많은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Run and Learn! We are the Future!” 2015 대학스포츠리그 슬로건 대학생 공모전 최우수작 선정

3월 6일(금)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에서 실시한 2015 대학스포츠리그 슬로건 대학생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됐다.

2015시즌을 맞이하여 대학스포츠리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스포츠리그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2015 대학스포츠리그 슬로건 대학생 공모전은 지난 1월 26일(월)부터 2월 8일(일)까지 2주간 접수가 진행됐으며 대학생들의 열띤 지원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응모작에 대한 평가는 1차 심사(KUSF 내부 심의)와 2차 심사(KUSF 페이스북 투표), 3차 심사(KUSF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총 3단계의 엄중한 심의로 이뤄졌다. 특히 2차 심사인 페이스북 투표에서는 총 8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2015 대학스포츠리그를 장식할 슬로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의 영광은 학생선수와 대학리그의 의미를 언어유희로 표현한 △Run and Learn! We are the Futuer!(김진수, 인하대학교 경영학부)에게 돌아갔으며 뒤이어 △청춘불패! 리그를 리드하라(신정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궤하라! 젊음 속의 뜨거움(이종민, 단국대학교 국제경영학과) △Enjoy Sports! Feel Campus!(김태권,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청춘아, 뛰어라! 즐겨라! 꿈꿔라!(이종인,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상 5개의 작품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된 한편 최우수작(△Run and Learn! We are the Future!)은 2015시즌 대학스포츠리그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2015 대학스포츠리그(농구·배구)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완료, 활동 준비에 박차

2015 대학스포츠리그(농구·배구)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모집은 본교에 대한 애교심을 바탕으로 대학스포츠 참여 문화를 형성한다는 서포터즈의 기본 개념의 따라 리그 참가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3월 6일(금)부터 3월 15일(일)까지 각 학교의 체육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총 18개 팀, 220여 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는 각각 3월 26일(목)과 27일(금)에 오리엔테이션 겸 제1차 기획회의를 갖고 서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한바,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2015 대학스포츠리그 서포터즈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활동, 각종 이벤트 기획, 경기장 운영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본교의 팀과 대학스포츠리그를 위해 열을 다할 한편, 대학생의 대학스포츠리그를 만들어 가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학스포츠리그 서포터즈는 대학스포츠리그를 활성화하고 대학생의 대학스포츠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에서 매 시즌 진행하고 있는 대외활동 사업으로, 3월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를 시작으로 추후 2015 시즌 대학축구리그 서포터즈 또한 모집할 계획이다.

KUSF 대학스포츠
웹진 4월호취재
후일담

예비 신궁이라고 기사를 썼던 강채영 선수는 진짜 신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인터뷰 한 선수들이 성장하는 만큼 제 글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채영 선수 국가대표 발탁 축하드려요.

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떠난 후 어연 2년이 지나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하고 싶은 연애는 못하고 대신 대학 스포츠로 돌아온 웹진 팀의 신입 김윤찬입니다.

웹진 팀의 비타민 c · 웹진 팀의 산소 · 웹진 팀의 애니콜 · 웹진 팀의 예거밤 · 웹진 팀의 포카리 스위트 같은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5월 호 부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대학 스포츠 그리고 웹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호에서는 봄 소풍이 주제였던 만큼 취재를 하면서도 설렘 가득한 호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봄 소풍보다도 더 신나고 재밌는 대학리그가 시작해서 아닐까요? ^^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과 함께 찾아온 대학스포츠! 올 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웹진팀도 더더욱 알찬 소식과 함께 5월호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커버스토리는 제까 여태껏 했던 인터뷰와 다르게 가벼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랬던만큼 약간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과 더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4월이면 대학리그가 한창인 시기입니다. 'RUN AND LEARN WE ARE THE FUTURE'라는 대학스포츠 슬로건처럼 열심히 학생선수들이 운동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달 멘토를만나다! 김지훈피디님을 만나봤는데요, 좋은이야기를 한가득~해주셔서 기사에 못다한 이야기가 많아 너무 아쉽습니당 π0π 그래서!! 블로그에서 폴스토리를 다룰 예정이니 액기스는 웹진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

이혜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벌써 4월호 작업이 마무리되어 웹진이 나온다니 가슴 벅칩니다. 봄 눈눅눅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대학농구리그를 미리 알아보는 프리뷰 기사와 여자 대학농구 동아리열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